

시련을 견뎌내는 품성 (Character That Stands The Test)

데릭 프린스 서간 (Derek Prince Teaching letter)

인내(endurance)란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도 아니고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하는 단어도 아니지만, 인내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1611년 흠정역 성경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이 발행된 이후로 영어의 어떤 단어는 의미가 많이 변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endurance를 사용하는 곳에 흠정역은 patience 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patience를 사용하는 곳에 흠정역은 longsuffering 을 사용합니다. Patience 나 longsuffering 은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나 힘든 상황에 직면해도 자제심을 잃고 화를 내거나 성깔을 부리지 않고 참고 견디며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흠정역에서 사용된 patience 는 현대 영어 성경에서는 endurance 나 perseverance 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흠정역에서 '견디다'는 뜻의 동사형으로는 to endure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을 읽어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은 이미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 박해 등.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한 가지 품성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And because lawlessness will abound, the love of many will grow cold,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마태복음 24장 12~13절)

불법이 성함과 사랑이 식어짐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세상이 무법천지가 될 때 사람들 사이의 사랑도 식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아무런 법도 규율도 필요 없는, 자연발생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과 규율은 같이 갑니다. 법과 규율이 무너지면 사랑도 식게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의 사랑은 헬라어로 agape 인 바,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짐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이 식어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두려운 예언입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는, 이런 무섭도록 황량한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그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보며 남기신 경고를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 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

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Now brother will betray brother to death, and a father his child; and children will rise up against parents and cause them to be put to death. And you will be hated by all for My name's sake. But he who endures to the end shall be saved.” (마가복음 13장 12~13절)

이것은 가족 간에 서로 배신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 부터 미움을 받는, 세상 마지막 때의 음침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권고 말씀은 똑같습니다. 견뎌라. 때로는 하나님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의 전부가 오로지 굴복하지 않고 버티는 일이고, 그것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매달려야 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는 프랑스에서 오래 섬긴 스웨덴 선교사를 만나서 들은 얘기를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그 스웨덴 선교사는 프랑스 남부 마르세유 부근에 있는 감옥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감옥은 16세기부터 17세기 사이 프랑스의 신교도 위그노들이 갇혔던 곳이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지하 감옥에 들어간 뒤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스웨덴 선교사는 어떤 죄수가 지하 감옥 바위 벽에 새겨 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프랑스어로 resister, 영어로 옮기면 resist 저항하라, 견뎌라 또는 버티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한 신자가 자기 뒤를 따를 다른 신자에게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저항하라. 굴복하지 말라. 버티라. 견뎌라. 하나님은 이 단어를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난의 열매 The Fruit of Tribulation

그렇다면 어떻게 인내를 기를 수 있을까?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Therefore, having been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through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미래만 생각하며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현재가 제공하는 것도 즐거워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And not only that, but we also glory in tribulations, knowing that tribulation produces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character; and character, hope.” (로마서 5장 3절~4절)

왜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까? 환난이 이루는 것 때문입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Tribulation brings about perseverance; and perseverance, proven character; and proven character, hope.”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증명된 품성을, 증명된 품

성은 소망을 낳는다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내는 우리 안에 증명된 품성 (proven character)을 낳습니다. 시련을 견뎌낸 품성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읽어봅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Now hope does not disappoint, because the love of God has been poured out in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 was given to us.”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품성의 문제임을 알게 됩니다. 본질적으로 우리는 품성의 형성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시련을 견뎌내는 품성을 낳고 품성이 소망을 낳기 때문입니다.

데릭 프린스 목사는 60년간 주님을 섬기면서 사람들로 부터 오해 받고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치며 숭한 어려움을 겪을 때 그 길을 함께 걸어간 동역자들의 품성이 증명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불법이 성하고 배신이 만연하는 시절이 닥칠 때 우리는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신뢰할 수 있을지 분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려는 유혹은 매일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러한 유혹에 굴복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서 함께 헌신하는 사람들을 배신하는 일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1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뎌냄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For this reason we also, since the day we heard it, do not cease to pray for you, and to ask that you may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in all wisdom and spiritual understanding; that you may walk worthy of the Lord, fully pleasing Him, being fruitful in every good work and increasing in the knowledge of God; strengthened with all might, according to His glorious power, for all patience and longsuffering with joy.”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주께 합당히 행하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면 심지어 역경을 다루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냥 오래 참는 것과 기쁨으로 오래 참는 것은 다릅니다. 기쁨으로 오래 참으려면 인내(endurance)와 힘(strength)이 요구됩니다. 인내(patience)는 힘(strength)을 증거하는 것이지 약함(weakness)의 증거가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일관된 주제의 하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에서 뒷걸음치는 일의 위험에 대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핵심 단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인내 (endurance) 입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And we desire that each one of you show the same diligence to the full assurance of hope until the end, that you do not become sluggish, but imitate those who through faith and patience inherit the promises.”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믿음과 오래 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취하는데 필요한 것은 믿음뿐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믿음과 오래 참음 두 가지 다 필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부터 36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Therefore do not cast away your confidence, which has great reward. For you have need of endurance, so that after you have done the will of God, you may receive promise.”

여기서 ‘담대함 confidence’ 이란 단어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과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해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는데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한 시점부터 실제로 약속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약속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끝까지 버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노력했지만 안되더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않으면 약속을 받지 못합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믿음과 인내 둘 다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는 마라톤 It's a Marathon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Therefore we also, since we are surrounded by so great a cloud of witnesses, let us lay aside every weight, and the sin which so easily ensnares us, and let us run with endurance the race that is set before us.”

여기서 사도 바울은 삶을 올림픽 경기에서 달려야 할 경주에 비유합니다. 결승선에는 누가 우승할 것인지 보려고 기다리는 허다한 관중이 있습니다. 이 허다한 관중은 자기들이 달려야 할 경주

를 마치고 천국의 발코니에서 우리를 응원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입니다.

바울이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할 때 우리는 육상 경주의 견지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육상 선수는 가장 가볍고도 유연한 옷을 입고 호주머니에는 아무 것도 넣지 않습니다. 불필요한 것은 일 그램도 몸에 지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죄가 아니지만 우리를 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을 빼거나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달려야 할 경주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마라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라톤 경주의 특징은 인내가 요구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단거리 경주를 달리듯 출발합니다. 그리고 출발한지 얼마 안되어 트랙을 벗어나 가쁜 숨을 몰아쉽니다. 결승선은 까마득히 먼 곳에 있는데 이미 경주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The race is not to the swift nor the battle to the strong...”

중요한 것은 스피드나 힘이 아니고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을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My brethren, count it all joy when you fall into various trials, knowing that the testing of your faith produces patience. But let patience (or endurance) have its perfect work, that you may be perfect and complete, lacking nothing.”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시련을 당할만한 자로 여기시고, 나를 시련을 당해도 견뎌낼 자로 여기시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우리가 시련을 겪어도 끝까지 인내하면 우리 품성의 모든 영역이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험사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련은 여러분을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데릭 프린스 선교회 한국 지부 대표 조철환 선교사 번역)